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 정 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 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Graduate Student, Ph. D. Course : Kim, Jung Hee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Moon, Hyuk Jun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first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the relevant factors such as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and secondly analyzed if parenting behaviors function as mediators. The subjects were 186 5-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related to the children's sex, health, and mother's academic caree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influenced by the relation satisf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role conflict between wife and husband, the mother's warm-hearted and rational parenting, and the wife's satisfaction of her husband's support. The mother's warm-hearted and rational parenting functioned as a mediator(intermediary factor) between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the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부모역할만족도(parental role satisfact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nkok2-Dong Wonmi-Gu, Buchu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yukj@unitel.co.kr

I. 서론

인간은 출생시부터 사회적 환경에 접하게 되며 이 환경과의 적응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데(최정미, 2002; Connolly & Bruner, 1974)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되는 능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유능성이라 할 수 있다(이숙, 1995).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연구마다 다양한데, 그 이유는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기술이 달라지고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바람직한 규준과 가치가 문화마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Dodge(1985)는 사회적 유능성이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하였으며, Krasnor와 Rubin(1983)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대인관계에서 동료 또는 성인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LaFreniere와 Dumas(1996)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적응적 관점을 취하면서,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의 기능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적 유능성이란 전반적 맥락에서의 사회정서적인 적응으로, 또래 및 성인의 선호, 정서적 성숙 및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하위요인을 긍정-친사회적 행동, 불안-위축된 행동, 그리고 분노-공격적 행동으로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과열된 지식 중심의 조기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민하영·유안진, 1999), 일찍부터 인지적으로 과다하게 노출된 결과 사회적 집단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증가하며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노서연,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Hartup(1991)은 성인기 사회적응을 예언하는 아

동기 발달요소는 지능, 학업성적, 교실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유능성임을 강조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아동들이라 하였다. 이처럼 아동기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응과 사회적 행동의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동변인, 부모변인 그리고 가정변인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중 아동변인으로는 성별, 출생순위, 기질 그리고 건강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LaFreniere의 8인(2002)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다문화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더 공격적이며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였고, 사회·정서적으로 적응적이지 못하는 등 취학 전 아동들에게 있어 전반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성차를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 유무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성희(1985)와 이혜영(1986)의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권연희(1995)의 연구에서는 교사평정에 의해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을 때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화된 관찰에 의해 측정하였을 때에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아는 교사나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해서 동생들에게 양보와 아량을 베풀도록 요구되어지고 동생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판단자의 역할을 맡으며(유안진·서봉연, 1982) 동생들 보다 성인 지향적이고 자아 통제적이며, 보다 불안하고 덜 공격적인데(유효순·이영자, 1986) 비해, 둘째아는 학습자나 추종자의 위치에 서게 됨으로 첫째아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심과 경쟁적 행동을 보임이(김경희, 1987) 밝혀졌다. 반면 첫째아가 동생출생 이후 경험한 결손감으로 인해 둘째아 보다 적대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

(Abramovitch, 1982)도 있으며, 둘째 이상의 자녀들이 첫째아 보다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는데(김제한, 1984; 김미화, 1997), 둘째 이상이 첫째보다 성취지향적이고 자아확신이 크며 낙관적으로 나타났다(Miller & Maruyama, 1976). 송나리·박성연(1993)과 김수영(2000)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밝힌 홍계옥(200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의 기질 중 접근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유능함을 보였다. 만 4세-6세를 대상으로 한 천희영(199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즉 조절결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 때, 소극적 조절형은 통제적일 때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을 부끄러운 성향, 금지통제성, 두려움, 불안감으로 분류한 김수영(2000)의 연구에서는 금지통제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 상관인, 불안감은 부적 상관에 있었다.

Zigler와 Trickett(1978)은 과거에는 지능검사가 일반적으로 아동의 중재 프로그램에서 평가척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사회적 유능성의 지표로 신체적 건강 등을 척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Vaughn과 Langlois(1983)는 신체적 건강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아동의 개인변인 중 인지능력(양영자, 1994)과 성격특성(김미화, 1997)에 따른 결과들은 제시되어 있으나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을 아동변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부모변인에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재연(199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 때 아동의 과제지향성이 높았으며, 위축행동 아동과 정상행동 아동 간의 차이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위축행동 경향이 덜함이 나타났는데, 이때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김미숙, 1982). 또한 전숙자(1984)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창의성, 협동성, 자기 표현성으로 간주하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안재연(199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중 지도력에서 우세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고, 그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숙경(1989)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 아동은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 충동적이고, 사회성 및 적응성이 부족했다고 보고하였는데 반해,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ills & Stevens, 1985).

가정변인에는 경제적 수준, 부모의 역할만족도, 양육행동 등이 연구되어왔다. 만 3세에서 5세아를 대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김혜영(1995)의 연구는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의 유능성이 유의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의 아동이 중류층 아동 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떨어진다는 다른 연구보고(이혜영, 1986; 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Ramsey, 1988)도 있다.

더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데 아동은 많은 사회적 행동패턴을 가족에게서 배우며, 특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Ladd & Golter, 1988; Pettit, Dodge & Brown, 1988). 즉, 정서적으로 혼란된 결혼관계가 정서적으로 유용한 부모를 뺀 버리고 양육행동의 질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했으며, 반대로 안정된 결혼은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욕구를 가진 부모를 만듦으로서 아동과 부모의 관계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하였다(Belsky, 1984).

또한 부모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이는 반면,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처벌적인 훈육을 사용하는 등의 반응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성 및 지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Simons, Bearnan, Conger, & Chao, 199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여러 변인이 영향을 미치며, 그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최승원·이정숙·서병숙, 1998)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이영주(1990)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도움, 협동, 나눔, 위로 등의 모든 사회적 행동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부모가 온정적일수록 아동은 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특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통제 차원에서도 부모의 통제가 적극적이고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을 설정하고 지도해 줄수록 도움성, 협동성, 이타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영애(1995)는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적대적·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더 많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정미(2002)의 연구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 친밀 애착요인, 가정의 소득, 불안 애착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홍계옥(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더 사교적이었고, 어머니가 유아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경우 유아는 더 협조적임이 드러났으며, 어머니가 한계설정을 많이 하고 애정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능함을 보였다. Hanes와 Dunn(1978)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 자신의 역할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녀양육 태도나 구체적인 역할수행 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의 배경변인들, 부모의 역할만족도 그리고 양육행동은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이 변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관련되어 있다(권연희, 2003). 따라서 이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아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사나 부모교육 실시자에게, 중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 1-1.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아동변인(성별, 출생순위, 기질, 건강), 부모변인(연령, 학력, 직업), 가정변인(월수입)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1-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1-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아동 186명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아가 91명(48.9%), 여아가 95명(51.1%)이었으며, 출생순위에서 첫째아가 98

명(52.7%), 둘째 이상이 88명(47.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98명(52.7%), 35-39세가 65명(34.9%), 40세 이상이 23명(12.4%)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44명(23.7%), 35-39세가 90명(48.3%), 40세 이상이 52명(28.0%)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94명(50.5%), 대졸이 67명(36.0%), 대학원 졸업이 25명(13.4%)이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74명(39.8%), 대졸이 78명(41.9%), 대학원 졸업이 34명(18.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서는 전일제가 57명(30.6%), 시간제가 28명(15.1%), 직업무가 101명(54.3%)이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 51명(27.5%), 200-400만원 86명(46.2%), 400만원 이상 49명(2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교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시 소재한 총 6곳의 유치원을 선정하여 만 5세반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 건강은 어머니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담임교사를 통해 각각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230부(어머니용 230부, 교사용 230부)이고, 회수된 질문지는 203부로, 이 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6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1)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LaFrenier와 Dumas (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SCBE) 간편형을 번역한 권연희(2003)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를 사용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아동이 보인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6점 척도로 평정한다. 사회적 유능성 총점은 불안·위축된 행동 점수와 분노·공격적 행동 점수를 역채점 한 뒤, 긍정·친사회적 행동 점수와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

<표 1> 측정 도구별 문항 수와 내적 일치도 계수

		측정 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아 동	사회적 유능성	긍정·친사회적 행동	10	.91
		불안·위축된 행동	10	.89
		분노·공격적 행동	10	.93
		총 점	30	.94
어머니	역할 만족도	일반 만족도	11	.86
		부모 자녀관계	10	.80
		배우자 지지	10	.95
		부모 역할 갈등	11	.79
		자녀의 지지	6	.87
	총 점	48	.93	
	양육 행동	온정·합리적 지도	14	.84
반응성		6	.69	
한계 설정		7	.75	
적극적 참여		4	.66	
총 점	31	.86		

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집단에서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1>에 정리하였다.

2) 아동의 기질과 건강

아동의 기질과 건강에 관한 문항은 기존의 연구(이혜란, 1984; Simons et al., 1993)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2문항을 선정한 현운강(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기질 2문항, 건강 2문항으로 각 1문항은 부정적 내용, 1문항은 긍정적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점 척도를 본 연구자가 5점 척도로 수정하여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하여 어머니가 평가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재부호화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질이 순하며, 또한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어머니 역할만족도

어머니 역할만족도는 현운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재구성했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이며, 전체 총점은 부모역할갈등 점수를 역채점 한 뒤 합산한 점수이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1>에 정리하였다.

4)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은 Crase, Clark과 Pease(1978)의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IPBI)를 기초로 수정한 손승희(2002)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통해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의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이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이 높은 것이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1>에 정리하였다.

3. 자료분석

1)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SPSS 10.0을 사용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각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2) 배경변인,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F검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역할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관계 기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교사 평점을 보면, 총점에 대한 평균(3.75점)은 불안·위축된 행동과 분노·공격적 행동에 대한 점수를 역채점하여 계산한 것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총점 평균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인		평 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아 동	사회적 유능성	긍정·친사회적 행동	3.58	.78	0-50
		불안·위축된 행동	1.12	.89	0-50
		분노·공격적 행동	1.20	1.10	0-50
총 점		3.75	.74	0-150	
	기 질	-	3.52	.87	2-10
	건 강	-	3.44	.82	2-10
어머니	역할만족도	일반 만족도	4.42	.48	11-55
		부모 자녀관계	3.65	.51	10-50
		배우자 지지	3.52	.93	10-50
		부모 역할 갈등	1.52	.58	11-55
		자녀의 지지	3.97	.72	6-30
		총 점	3.80	.47	48-240
	양육행동	온정·합리적 지도	4.04	.42	14-70
		반응성	3.95	.56	6-30
		한계 설정	3.83	.53	7-35
		적극적 참여	3.43	.60	4-20
총 점		3.90	.36	31-155	

은 부모역할갈등 점수를 역채점하여 계산한 것으로 3.8점으로 '그렇다' 라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별로 보면 일반만족도, 부모 자녀관계, 배우자 지지, 자녀의 지지 점수 모두 3.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갈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 1.52점으로 '그렇지 않다' 쪽에 가깝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경우도 평균 3.9점으로 '그렇다' 라는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전반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배경변인, 어머니 역할만족도,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1)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배경변인 간의 관계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면,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여아(M=3.72, SD=.63)가 남아(M=3.43, SD=.89) 보다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t=-2.55, p<.05)를 보여주었고, 반면 분노·공격적 행동의 경우 남아(M=1.41, SD=1.20)가 여아(M=1.00, SD=.96)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그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2.56, p<.05).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구 분		성별	사례수	M	SD	t값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긍정·친사회적 행동	남	91	3.43	.89	-2.55*
		여	95	3.72	.63	
	불안·위축된 행동	남	91	1.05	.94	-1.07
		여	95	1.19	.84	
	분노·공격적 행동	남	91	1.41	1.20	2.56*
		여	95	1.00	.96	
	사회적 유능성(총점)	남	91	3.66	.83	-1.72
		여	95	3.84	.63	

*p<.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표 5>의 결과와 같다. 분노·공격적 행동은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M=3.60, SD=1.23), 시간제 취업(M=4.21, SD=0.71), 그리고 전업주부(M=3.60, SD=1.23)의 집단간 유의차가 나타났다(F=3.02, p<.05).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배경변인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배경변인 중 아동의 건강이 긍정·친사회적 행동(r=.15, p<.05), 불안·위축된 행동(r=-.16, p<.05)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분노·공격적 행동(r=-.14, p<.05)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건강한 아동일수록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불안·위축된 행동이 적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분노·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 부모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 그리고 가정의 월 수입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표 4>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구 분		출생순위	사례수	M	SD	t값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긍정·친사회적 행동	첫째	98	3.57	.77	-1.19
		둘째 이상	88	3.59	.80	
	불안·위축된 행동	첫째	98	1.19	.92	1.13
		둘째 이상	88	1.04	.85	
	분노·공격적 행동	첫째	98	1.27	1.08	.87
		둘째 이상	88	1.13	1.12	
	사회적 유능성(총점)	첫째	98	3.70	.76	-.96
		둘째 이상	88	3.81	.72	

〈표 5〉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구 분		취업유무	사례수	M	SD	F값	Schéffe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긍정·친사회적 행동	전일제	57	3.52	0.86	.28	
		시간제	28	3.65	0.73		
		전업주부	101	3.59	0.75		
	불안·위축된 행동	전일제	57	3.80	0.97	.43	
		시간제	28	3.99	0.79		
		전업주부	101	3.89	0.87		
	분노·공격적 행동	전일제	57	3.60	1.23	3.02*	a
		시간제	28	4.21	0.71		
		전업주부	101	3.80	1.09		
	사회적 유능성(총점)	전일제	57	3.64	0.83	1.68	
		시간제	28	3.95	0.61		
		전업주부	101	3.76	0.71		

*p<.05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표 6〉 배경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배경 변인						
	아동기질	아동건강	모의 연령	부의 연령	모의 학력	부의 학력	월수입
긍정·친사회적 행동	.13	.15*	.09	.09	.06	.08	-.01
불안·위축된 행동	.02	-.16*	-.02	-.03	.04	-.01	.00
분노·공격적 행동	-.02	.00	-.04	-.05	-.14*	-.08	-.03
사회적 유능성(총점)	.05	.12	.06	.07	.08	.07	.01

*p<.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간의 관계

〈표 7〉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역할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분노·공격적 행동이 배우자 지지만족도($r = -.16, p < .05$), 역할갈등($r = .16, p < .05$), 그리고 역할만족도 총점($r = -.15, p < .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배우자 지지만족도가 높고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그리고 역

〈표 7〉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역할만족도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배우자 지지 만족도	역할갈등	자녀 지지 만족도	역할만족도 (총점)
긍정·친사회적 행동		-.04	.02	.09	-.08	-.01	.07
불안·위축된 행동		.00	-.07	-.04	-.02	.03	.00
분노·공격적 행동		-.12	-.02	-.16*	.16*	-.04	-.15*
사회적 유능성(총점)		.07	.02	.13	-.12	-.01	.10

*p<.05

할만족도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공격적 행동이 낮음을 보여준다.

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표 8〉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온정·합리적 지도는 긍정·친사회적 행동($r=.17, p<.05$) 및 분노·공격적 행동($r=-.15, p<.05$)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고, 반응성은 긍정·친사회적 행동($r=-.17, p<.05$)과 한계설정은 불안·위축된 행동($r=-.15, p<.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온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그리고 아동의 상황에 반응을 적게 할수록 높았고, 한계설정이 높을수록 불안·위축된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반응성이 적을수록 사회적 유능성 총점이 높게 나타났다($r=-.15, p<.05$).

2. 배경변인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아동변인(성별, 출생순위, 기질, 건강), 부모변인(연령, 학력, 직업), 가정변인(월수입),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각 회귀분석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아동의 성별과 건강, 어머니의

학력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의 다섯 가지 하위 변인의 주 효과를 고려한 후 양육행동의 네 가지 하위 변인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총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모 자녀관계 만족도($\beta=.25, p<.05$), 부모 역할갈등($\beta=-.21, p<.05$), 온정·합리적 지도($\beta=.20, p<.05$), 그리고 배우자 지지만족도($\beta=.18, p<.05$) 순으로 그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긍정·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온정·합리적 지도($\beta=.27, p<.01$), 부모 역할갈등($\beta=-.17, p<.05$), 그리고 성별($\beta=.16, p<.05$)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불안·위축된 행동의 경우 건강($\beta=-.17, p<.05$)과 한계설정($\beta=-.17,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분노·공격적 행동의 경우 부모 역할갈등($\beta=.22, p<.01$), 어머니의 학력($\beta=-.18, p<.05$), 그리고 성별($\beta=-.17,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행동의 하위변인 중 온정·합리적인 지도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와 긍정·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한계설정은 불안·위축된 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교사 평가 총점의 14%, 긍정·친사회적 행동의 16%, 불안·위축된 행동의 10%, 그리고 분노·공격적 행동의 14%를 설명해 주었다.

3.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표 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관계수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양육행동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 (총점)
긍정·친사회적 행동		.17*	-.17*	.06	.01	.12
불안·위축된 행동		-.01	.11	-.15*	-.03	-.01
분노·공격적 행동		-.15*	.09	-.07	-.05	-.14
사회적 유능성(총점)		.14	-.15*	.05	.02	.11

* $p<.05$

<표 9>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총 점	긍정·친사회적 행동	불안·위축된 행동	분노·공격적 행동
	β	β	β	β
성 별 ¹	.09	.16*	.12	-.17*
건 강	.13	.14	-.17*	-.01
어머니의 학력	.11	.09	.02	-.18*
일반적 만족도	.02	.07	.02	.00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25*	.19	-.21	-.21
배우자의 지지 만족도	.18*	.13	-.16	-.16
부모역할갈등	-.21*	-.17*	.09	.22*
자녀의 지지 만족도	.03	.03	-.03	-.02
온정·합리적 지도	.20*	.27**	-.13	-.11
반응성	-.14	-.15	.08	.10
한계설정	.13	.15	-.17*	-.03
적극적 참여	.02	.04	-.03	.02
상 수	4.28***	4.09***	3.42***	5.32***
R ²	.14	.16	.10	.14
F	2.41**	2.81**	1.58	2.32**

*p<.05 **p<.01 ***p<.001

1: 남아, 2: 여아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그리고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이에 상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였다. 첫째는 분노·공격적 행동과 역할만족도 총점 및 온정·합리적 지도, 둘째는 분노·공격적 행동과 배우자 지지 만족도 및 온정·합리적 지도, 마지막으로 분노·공격적 행동과 부모 역할 갈등 및 온정·합리적 지도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온정·합리적 지도를 통제하였을 경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변인인

<표 10>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적률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분노·공격적 행동	
	적률상관계수	부분상관계수 (온정·합리적 지도 통제)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역할만족도 (총점)	-.15*	-.08
배우자의 지지만족도	-.16*	-.11
부모역할갈등	.16*	.12

*p<.05

분노·공격적 행동이 어머니 역할만족도 총점 및 하위변인인 배우자 지지 만족도, 부모역할갈등과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온정·합리적 지도가 부분적으로 매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능성과 아동변인(성별, 출생순위, 기질, 건강), 부모변인(연령, 학력, 직업), 가정변인(월수입),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본 연구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아동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먼저 남이는 분노·공격적 행동이 높은 반면 여아는 긍정·친사회적 행동이 높았는데, 이는

여아가 또래친구에 대해 더 관대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안정성도 높다는 연구결과(White, 1972)와 여아가 놀이상황에서 남아보다 위로적이고 협동적이라는 이영주(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건강한 아동일수록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불안·위축된 행동이 적었음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건강이 환경 못지않게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분노·공격적 행동이 적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난 최정미(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그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라고 보고 된 결과(조병은 외 8인, 1995)에서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리자가 되고 사회화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경우 어머니는 아동에게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73)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어(Schaefer & Bayley, 196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는 연구결과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동생이 의사소통이나 모방행동, 접근행동과 대화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는 결과(김상희, 1990; 최은숙, 1992)나 첫째아가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동생보다 사회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이형덕, 2000; Kramer & Gottman, 1992)와 상반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질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순한 기질의 아동에 비해 사회적 유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유의하게 밝혀진 원영미(1989)의 연구와 다르며, 기질적 성향을 접근-회피성, 규칙성, 활동성, 지구력, 그리고 적응성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결과 사회적 유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홍계옥(2001)의 연구와 Parker-Cohen과 Bell(1988)의 분석과 차이가 있는데, 기질척도가 본 연구와 다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추

후 연구가 요구된다.

부모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유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는 본 연구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때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김영미(2001)의 연구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애정적, 수용적, 외향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이은수(1985), 우대식(1992)의 보고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의 소득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되어지는 경험이나 자극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최정미(2002)의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하위변인 중 배우자의 지지만족도가 높고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아동의 분노·공격적 행동이 낮았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과 전반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역할에 대한 갈등이 적을수록 자녀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역할만족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온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아동의 상황에 반응을 적게 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높을수록 불안·위축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민경(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의 요구에 어머니의 지나친 민감성 및 반응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의존성을 야기하며 그 결과 사회적 위축, 불안, 분노, 공격적 행동 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 1994).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교성(김정아, 1990; 문혁준, 2001), 친사

희성(조복희·양연숙·김압이·장미자·곽혜정·한유미, 1997)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아동은 능동적이며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보고한 Becker(196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일관적이고 민주적인 한계 설정이 아동의 사회적 활동성, 책임감, 독립심, 주도성과 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권윤정, 1999; 박범실, 1987; Baumrind, 1973), 즉 부모가 아동의 행동이나 생활습관에 일관적으로 한계를 설정해 줄수록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계획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넷째, 배경변인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긍정·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온정·합리적 지도가, 불안·위축된 행동은 아동의 건강과 한계설정이, 분노·공격적 행동은 부모역할 갈등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다.

다섯째,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분노·공격적 행동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전체, 배우자의 지지만족도, 부모역할갈등이 온정·합리적 지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온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역할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할만족도 총점과 배우자의 지지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지도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아동의 분노·공격적 행동에 각각 부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아동의 분노·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온정·합리적 지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예언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불만족하는 어머니 보다 자녀관계의 질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Lerner & Galambos, 1985), 만족스러운 어머니-자녀관계는 아동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긍정적 정서, 학업 성취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Cleminshaw & Guidubaldi, 1989)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 자신의 역할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녀양육태도나 구체적인 역할수행 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Hanes & Dunn, 1978)와도 연관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한 시사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와 부모역할 갈등, 배우자의 지지만족도 그리고 온정·합리적 양육행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고 부모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과 교육, 그리고 보다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과 어머니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표집수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에서 아동과 연관된 다양한 대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무수한 환경 변수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아동과 부모의 특성 그리고 상황적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많은 변인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인간관계의 '상호성'을 경험하며, 새로운 입장에 어울리는 능력, 자율적 관점의 점진적 적응, 협동능력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공인숙, 1989), 또래와의 관계형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후연구들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변화되는 가족형태, 예를 들면 한부모자녀, 조부모자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보고 되어있다. Goodman, Brogan, Lynch와 Fielding(1993)은 아버지의 심리상태와 배우자 유무는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을 설명한다고 하였고, Russell과 Russell(1987)은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어머니의 일상적인 돌봄이 감소되고 아버지와와의 애정적 관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사회화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밝힌바 있는데, 후속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한 연구를 한다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교사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부모의 관점에서 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또래에 의한 측정법, 면접법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다 명료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관심은 아동의 배경변인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반대로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나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실재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좀 더 타당하고 객관적인 연구로서 어머니 실제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때,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연구결과와 관련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등을 통해 인과관계의 영향을 규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1995).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윤정(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87).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8(2), 45-60.
- 김미숙(1982). 아동의 위축행동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1997).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희(1990). 형제간 및 또래 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2000).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가정환경 변인 및 기질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 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아

- 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한(1984).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차에 대한 일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17, 491-512.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해영(1995).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서연(2003).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2(1), 1-15.
- 민하영, 유안진(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20(1), 61-77.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나리, 박성연(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91-107.
-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영자(1994). 유아의 인지양식과 타인에 대한 감정조망능력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대식(199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미(1989). 유아의 기질, 모친의 양육태도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분석. 교육학연구, 27(2), 63-80.
- 유안진, 서봉연(1982). 인간발달.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효순, 이영자(1986). 유아사회교육. 서울:교문사.
- 이 숙(1995).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55-69.
-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 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2), 107-118.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덕(2000). 아동의 성, 출생순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숙자(1984). 아동의 가정환경변인과 사회성과의 상관관계. 숭의여자전문대학. 숭의논총, 7, 15-23.
-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86-93.
- 조복희, 양연숙, 김암이, 장미자, 광혜정, 한유미(1997).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6), 244-259.
-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최승원, 이정숙, 서병숙(1998).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생활과학연구, 16, 53-71.
- 최은숙(1992). 형제간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행동.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2002).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4), 125-138.
- 한민경(20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 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 수용능력과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온강, 조복희(1994). 한국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bramovitch, R. (1982). Patterns of sibling interaction among preschool age children. In M. Lamb & B. Sutton-Smith(Eds.), *Sibling relationship*.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pp. 174-175).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leminshaw, H. K., & Guidubaldi, J.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 & 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pp. 257-277). San Diego: Academic Hall.
- Connolly, K., & Bruner. (1974). *Competence: Its nature and nursery*. London: Academic Press.
- Cruse, S. J.,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odge, K. A. (1985). *Fa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Children's peer relation*. N.Y.: Springer-Verlag.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Hanes, M. L., & Dunn, S. K. (1978). Maternal attitudes and the development of mothers and children. In J. H. Stevens, Jr. & M. Matthews,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51-67).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artup, W. W. (1991). *Hav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keeping friends: Relationships as educational contexts*. In Resources in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5 854)
- Kramer, L., & Gottman, J. M. (1992). Becoming a Sibling: What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85-699.
- Krasnor, L. R., & Rubin, K. H. (1983). Preschool social problem solving : Attempts and outcome in naturalistic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45-1558.
- Ladd, G.,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s 3 to 6 years: The short form(SCBE-30).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9-377.
- LaFreniere, P. J., Masatak, N., Bu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Schreiner, S., Montirosso, R., & Frigerio, A.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19.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Miller, N., & Maruyama, G. (1976). Ordinal position and peer popu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23-131.
- Mills, B. L., & Stevens, A. (1985).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 Differences in parental child rearing practic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2, 181-94.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s,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Ramsey, G. (1988). Social skills and peer status: A comparison of two socio-economic groups. *Merrill-Palmer Quarterly*, 34, 185-202.
- Russell, G., & Russell, A. (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Schaefer, E. S., & Bayley, N. (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John Wiley & Sons, Inc.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M.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Vaughn, B. E., & Langlois, J. H. (1983).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correlate of peer status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561-567.
- White, G. M. (1972).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and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39-148.
- Zigler, M. E., & Trikett, P. K. (1978). I.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9), 788-798.

(2004년 4월 30일 접수, 2004년 7월 7일 채택)